

2017 년 7 월 9 일 “찾아오신 예수님(32)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15:1-8)

<도입>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두 질문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근원적 질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그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조건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라를 다른 표현으로 4 절부터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서로 안에 거함으로서 **하나됨**을 뜻합니다. 하나됨이란 획일적 일치가 아니라, 한 목표 아래 방향성을 같이 하며 뜻과 마음과 방식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88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비추어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뜻과 방식을 맞추어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절 나와 하나됨을 이루라. 나도 너희와 하나됨을 이루리라.

4 후 너희가 나와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면.

5 절. 그가 나와 하나되고, 내가 그와 하나되면.

6 절. 사람이 나와 하나되지 아니하면.

7 절. 너희가 나와 하나됨을 이루고, 내 말이 너희의 뜻과 방식을 이끌어 하나되면 이라는 뜻.

4~7 절까지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

그러면 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2 절부터 반복하여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2 절.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4 절. 주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절. 주님과 서로 하나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6 절. 서로 하나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7 절. 주님과 하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8 절. 주님과 서로 하나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 매절 열매에 관하여 말씀.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이루는 열매의 실체에 관해서입니다.

[2] 열매 = 관계 공동체(사랑과 친밀함이 특징.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이것은 14 장부터 나타납니다. **첫째**,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버지 집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거하는 형제들(공동체)을 암시합니다.

둘째, 4:12,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언급된 일은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공동체(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적 베풀도, 영적 사역도, 선교도, 모두 그 일의 부분적입니다(지난 강해 3 편 참고).

셋째, 14:23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make home)는 뜻이었죠. 이 모두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됨을 통해 나 개인의 업적이나 평온이나 윤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약속의 말씀은, 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구하면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7 절후).

성경은 한 개인적 삶의 이슈를 충실히 다루어 주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완성이 성경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에덴동산 - 아담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창 2:18).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가족 공동체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족장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 후 그들의 후예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율법이라는 숭고한 삶의 안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국가로서 출범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1 제자들만 남겨 놓으신 듯 했지만 곧 이 땅에 사도 공동체를 이루셔서 오늘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맺음>

서두에서 언급한 두 질문,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면 예수님의 의도와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기독교의 진수와 멀어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 교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정한 공동체성, 즉,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적 공동체에 대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의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답변을 나누어 보십시오.
2.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안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말씀해 보십시오.
3. 우리의 본성은 개인중심적임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인중심적 관점 위에 발전한 이해의 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성경적일까요?
4.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거함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자는 말씀은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